

# 아르헨티나의 서점

## 최래옥

한양대 교수·국어교육학과

이야기를 좋아 하면 가랭이가 찌지게 가난하게 산다는데, 나는 이야기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열린다」가 잘 팔려서 그 돈으로 아내를 모시고(?) 처형이 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난 7월11~23일 갔다 왔다. 참새의 방앗간이라고 내가 거기 가서도 서점을 어이 도외시하라? 갔다온 인상을 몇가지 말하겠다.

첫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프로리나, 온세 지역 등)에는 50~100m 거리에 가판점이 쭉 있는데 그 규모와 양이 우리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신문가판, 잡지가판, 신문·잡지 겸용 가판 이지 파자나 버스표 함께 파는 겸업은 아니었다. 크기는 진열 넓이가 3평 좌우인데 잡지의 경우 전문지, 교양지, 그리고 플레이보이 같은 예로잡지 등 주간지 중심으로 다채로웠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만화잡지도 눈에 띄었는데, 어느 곳은 셀든이나 푸코의 인기 단행본도 있고, 이집트여행 비디오 테이프, 뉴욕안내 비디오테이프 등 국제여행 관광테이프도 있었다. 물론 우표도 종류별로 50장 정도를 10달러에 팔기도 하고 관광엽서도 팔았다. 솔직히 섹스잡지를 표지로나마 보는 재미에 발길을 멈추었는데, 신문가판은 독일·프랑스·스페인·미국 등 세계 각국의 잡지가 깔려 있었다. 가정집 TV채널이 64개(처형집은 그 중 절반인 32개를 본다)에 놀란 나는 외국신문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종로 가판대에 인민일보나 아사히신문이 놓인 것으로 대처해 보고 놀라 왔다.

둘째로 점원의 수준이 높았다. 서점은 교보문고 같이 큰 곳은 못 가보았으나(있는지 모른다) 빌딩 아래층을 다 쓰는 큰 곳은 가 보았다. 간디서점이 한 예인데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니 사실 文盲이라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절통하였다. 우리나라가 스페인어 교육에 더 치중을 해야 하리라. 스페인은 물론 중남미 24개국이 같은 말을 써서 마드리드나 멕시코에서 낸 책이 허다하게 꽂혀 있었다. 스페인어 사용권에서는 국경이 없는 출판사업이었다. 그 점을 나는 모르고 서점에 갔다. 내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근교 라 플라타 시내 서점을 가서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오 삽화집이나 아르헨티나 민속에 관한 책을 찾으니까 점원 중에서 전공자가 와서 “프레이아노 프로페소르(한국교수)가 찾으시는 책이 있을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아서 그 책의 가치를 설명하고, 어떤 책은 “없어서 미안하다. 어느 대학도서관에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주마. 필요한 곳은 시간을 주면 복사해 주마. 당신이 찾는 책은 사실 여기서 잘 안찾는 책이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점원이라기보다는 전공 교수 같았다. 조카가 이르기를 퇴임교수가 서점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책 진열은 정치·철학·과학 분야는 많은데, 내가 찾는 인문과학은 적은 인상이었다. 큰 서점에서도 예로잡지를 팔고, 정가판매나 할인판매코너를 구분해 두고 있었다. 넷째로 책값이 우리에 비해서 돌운(비싼) 편이었다. 특히 교과서의 고가는 놀랄 지경이었다. 대학까지 등록금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예를 들면 고 2짜리 교과서(228p)가 20달러였다. 학기초가 지나서인지 17달러에 팔았는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싸다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랐다. 교과서는 참고서같이 2도, 3도씩을 쓰고 내용이 충실하였다. 천연색 그림이 있는 국배판 양장 동화책은 100p 내외인데도 12달러였다. 전공서적은 20달러 이상이었다. 다섯째로 한국에 관한 책이 전무했다. 올림픽과 월드컵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알고 있는데 교포사회나 본국인이 적극적으로 양국 이해용 출판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선 스페인책 번역에 치중해서... 여섯째로 은퇴한 대학교수나 졸업한 학생이 공원 같은 곳에서 책 가판을 열고 싸게 파는 것을 보았다. 도서관에서 받아주지 못할 양과 질이라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듯 팔겠다는 뜻이었다. 뜻이 맞는 후배나 同學을 만나면 거저 줄 수도 있다. 이것이 학문의 전승과 전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민 1세로 성공한 최재학씨, 국문학자 김동욱 교수의 자제인 김경씨, 전직교사였던 김한식씨(한인학교 교장), 그리고 사재를 털어서 4000만달러를 후사한 김해선 아르헨티나 대사 등이 앞장서고 교포가 합심해서 세우고 있는 한인학교에 국내출판사나 서점의 도서기증이 활발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국내서점과 아르헨티나 서점거리의 자매결연은 또 어떨지...

표지인물 2 「헌법연구」 펄낸 정종섭교수

특집 4 문고본 출간에 부활의 기미는 보이는가

6 한국 문고본 출판의 역사적 전개

8 독서대중화 선도한 세계의 유명문고본

초점 10 급증하는 '신간반쯤' 해결의 묘안은 없는가

서평 12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 조성달

힐 외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발전」 - 이성규

13 매튜언 「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 김창엽

텔러 외 「물리 속의 물리」 - 최종덕

14 존스톤 「무용의 현상학」 - 김경애

김만수 「문학의 존재영역」 - 조영복

15 최일남 「하얀 손」 - 차창룡

16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 문홍술

이원규 「천사의 날개」 - 신덕룡

이책을말한다 17 휴암스님 지음 「장군죽비」 - 이한구

쟁점서평 18 「탈춤의 미학」에 대한 임재해의 서평을 비판한다 - 이훈상

출판화제 20 도시인 위한 문화생활 안내서 잇따라 출간

서점기획제 22 독자들 발길 끄는 서점가 특설코너

이 책 그사람 24 「신들의 반란」 펄낸 임병주씨

「영화마을 사람들」 펄낸 박지연씨

25 「별종별」 펄낸 김종해씨

「땅굴」 펄낸 존 얼드리치씨

연재기획 26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③ - 이호백

해외출판 28 규모확대로 성공경영 이끄는 미국의 출판계 - 유은영

세계의 책 30 초창기 디즈니영화의 캐릭터 탄생비화 - 배병삼

32 독자서평

34 화제의 신간

36 신간안내

44 200자안내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독후안내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 ④

## 그것도 책 임감?

당달이 시리즈가 아닙니다. 출판기획론 수업시간에 벌어진 작은 해프닝. 기획 실습을 하던 중 한 조에서 (당달이시리즈)를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조에서는 출판문화를 들먹이며 “그것도 책임감”하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꼭 한 달 뒤 (당달이시리즈)는 진짜로 출판되었습니다. 현장감 넘치는 수업, 지나칠 정도로 똑똑한 이해들.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재공입니다.

여비가지모집/대재 및 졸업자(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02)747-1991 취업도모실/(02)747-1993

대학로 파크리빙타워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